

문 없는 문을 박차고 나가라!

수행일기 · 역사와 의미 · 탐방... '무문관'의 모든 것 답아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마치 쥐가 소름에 들어가듯, 뿔의 끝이 좁듯이 번뇌의 소진되는 폭도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다.”

“주인공아, 너 혹시 깨달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아닙니다. 단지 화두 쟁기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혹시 화두가 달아나 버릴까 걱음도 빨리 걷지 않고 정(定)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번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맑은 거울에 비친 티끌과 같이 훤히 보입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리는 어느 한 수좌스님의 무문관 수행일기중 일부다. 무문관(無門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는 무문관은 선방의 일종인데, 장소적 개념보다는 그곳에서 행하는 수좌 스님들의 무문관 수행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깨닫지 못하면 문밖 세상에 나가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자물쇠를 잠근 독방에서 수년간 바깥세상과 절연하고 화두 참구하며 용맹정진하는 참선법종 하나다. 한국 선(禪)의 용맹정진하는 기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행법이기도 하다. '무문'에는 문이 없어 어디로도 통하는 대도(大道)의 문은 찾기 어렵다는 의미와 문 아닌 곳이 없어 사방세계가 그대로 '무문'이라는 이중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런 무문관이 주무대인 이 책은 그동안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했던 무문관의 의미와 역사를 비롯해 그 수행일기와 현장, 무문관을 투과한 고승들의 수행역정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무문관’이 하나의 보통명사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64년 도봉산 천축사에서 정영 스님이 ‘무문관’이라는 참선수행도량을 세우면서 부터라고 저자는 소개한다.

이후 65년부터 79년까지 매회 6년간 현대의 고승들이 밖에서 문을 자물쇠로 걸고 면벽 수행했던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은 79년 원공 스님을 마지막 수행자로 문을 닫았지만(현재는 시민선방으로 운영), 93년 계룡산 대자암에서 다시 명맥을 이어간다. 뒤이 제주도 남곡선원(94년), 설악산 무금선원(98년), 강원 백련사 만덕선원(2002년), 천성산 조계암(2004년), 감포 영남불교대학 무일선원(2005년)에도 무문관이 잇달아 생겨나면서 무문관 수행이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도 무문관은 늘어날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한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부분은 2부 ‘무문관 수행일기’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수행자들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라 한 수좌스님의 대리체험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은 책장을 술술 넘기게 만든다.

무문관 수행일기는 남쪽의 도 선원 무문관에서 3년 7개월간 폐문 정진을 마치고 나온 한 수좌 스님이 운몽(病苦)을 이겨내며 쓴 생생한 참선 수행 기록이다. 수행일기는 이중 약 10개월 동안의 무문관 생활에서 겪은 소박한 이야기와 참선 중에 느낀 내면의 체험을 가감없이 적어 놓았다. 하지만 수행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록의 양이 짧아지고 글기야는 10개월 만에 중단된다. 이는 모든 언어와 문자를 초월해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는 수행자의 사교인선(捨交入禪)교학을 잊고 선(禪)의 경지에 들다가 여정을 지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당초 수행일기를 쓴 수좌스님은 이 일기를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무문관 수행에 대한 기록들이 전무해 새로 무문관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불교계 내외의 무문관 수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부분적으로나마 소개해야 한다는 저자의 끈질긴 설득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다. 때문에 책에는 수좌스님의 법명을 ‘무명(無名) 스님’이란 가명으로 표기하고 있다.

저자가 스님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여름 부산에서였다. 스님은 3년 7개월간 무문관에서 묵은 수행한 탓에 말문이 잘 터지지 않아 대화하는데 애를 먹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저자는 회고한다. 하지만 험한 눈빛 청정한 기운은 계정해(戒定慧) 삼학을 함께 담은 수행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직지’ 찾아 중국대륙을 뒤지다

‘직지탐험대’ 2차 답사 기록...백운화상 유적지 ‘생생’

지난해 4월 4명으로 구성된 답사단은 5박6일 일정으로 직지의 고향인 청주 공황을 통해 중국으로 날아갔다. 일명 ‘직지탐험대’ 2차 답사단들이다. 이들이 처음 밟은 땅은 직지의 편저자로 알려진 백운화상(1299-1375)이 54세에 방문한 저장성 후저우시 천호암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중국으로 갔을까? 저자는 10여년간의 직지관련 문헌연구와 1차 중국 답사를 통해 직지가 중국대륙에 있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직지심체요절’이라는 보물을 찾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 2-3년 전부터 탐험대를 꾸려 중국 저장(浙江)성 후저우(湖州)시와 허난(河南)성 웨양(洛陽)시, 산시(山西)성 장주(长治)시 등 3개 지역을 답사하면서 보물지도를 그렸다. 그 지도위에 삶을 붙인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비록 이번 답사에서 탐험대는 직지를 찾지 못했지만, 거대한 대륙 중국의 참다운 문화를 배우며 직지찾기의 발원을 더욱 굳건히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다. 그 여정의 기록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 이 책은 답사기도 기행문도 아닌 일종의 보물찾기 지도라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김주일 기자



직지탐험대 중국간다
정덕형 지음
우리출판사 펴냄 | 8000원

호흡만 잘 해도 행복해진다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다. 그 관찰자 시점이 통찰될 때 거기에서 벽 없는 수많은 발상과 영감이 무수히 쏟아져 나온다. 이 책은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메시지는 갈려 있는 나를 열고 마음으로 세상과 자신을 보게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수용하며 이해하게 한다.

저자는 그 메시지를 터득하기 위해 명상을 권한다. 모든 명상은 관(觀)의 원리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호흡법과 요가, 기공수련, 그리고 명상과 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하나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 책에서는 이 관에서 선까지를 단계적으로 다루면서 어떤 이해에 도달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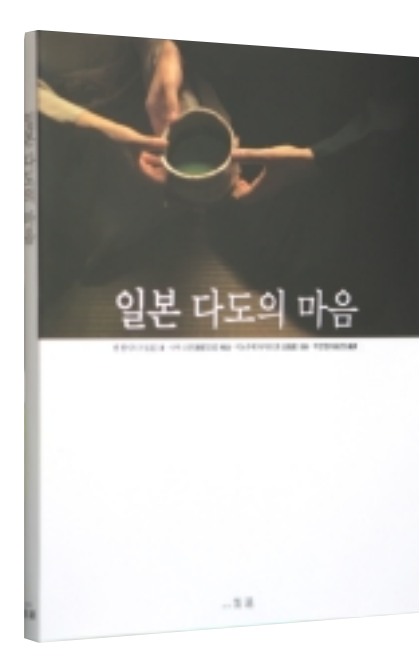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 마음이 불연애요	법통	정토
2	옛것을 부수고 오히려	성철	장강각
3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4	붓다로부터 배우는 재치교육의 지혜	민병직	운주사
5	맑고 향기롭게	법정	조화로운 삶
6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8의 기적	김재성	아름다이어
7	유식학입문	오형근	대승
8	바이로체나	공파	맑은소리 밝은나라
9	도를 찾아 떠난 고공미	영리브뤼엘	솔바람
10	꽃비	원성	마음의 숲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일본 다도의 마음

월간 다도 단행본 시리즈 제2탄



일본 다도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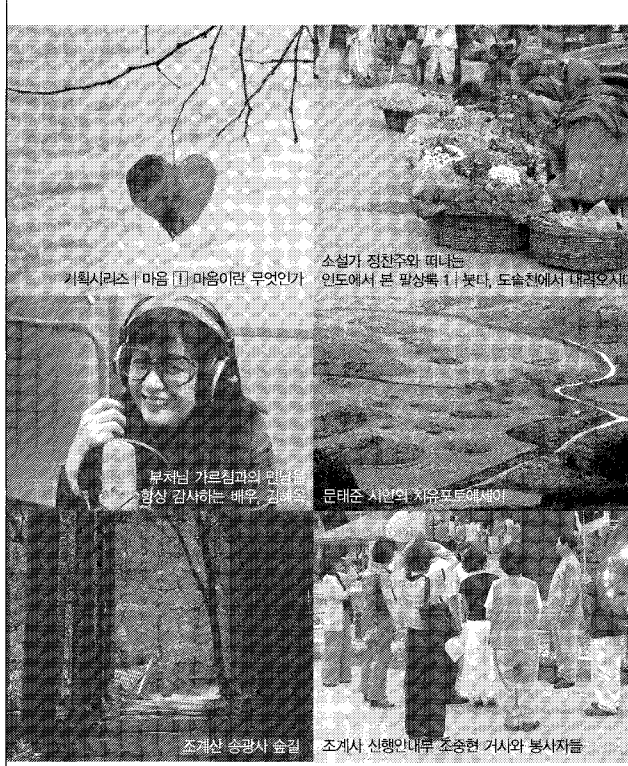
조용하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다도의 마음』은 일본 다도 가문을 대표하는 우라센케(裏千家). 그 우라센케(裏千家)의 대종장(大宗匠)인 센겐시츠(千玄室)가 50년 이예모도(家元)를 지내며 느낀 다도와 일상, 그리고 그 정신세계를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엮은 책입니다.

센겐시츠(千玄室) 著 · 나야 소탄(納屋宗淡) 解説 · 이노우에 다카오(井上隆雄) 寫眞 · 박전열(朴全烈) 翻譯
원래 · 210×276 · 140페이지, 값 · 23,000원

구입문의: 월간 다도 (02)722-7777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의 위안을 주는 편안한 잡지

월간 『불교와 문화』가 불교와 문화의 풍성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불교와 문화
02
2007

사진으로 보는 2007년 2월호

테마사찰, 한국 최고의 산신당이 있는 공주 신원사

소설가 김현우와 떠나는 인도에서 본 팔상목 1, 붓다, 도솔전에서 13년전이나

기원시리즈 '마음' 11 마음이란 무엇인가? 인도에서 본 팔상목 1, 붓다, 도솔전에서 13년전이나

부처님 가르침과의 만남을 상상 강사하는 배우, 김희영

문태준 시인의 자유프로젝트

청소리속들기 박물관

조계선 수행사 승리

조계사 수행인내로 조순한 가사와 불사자들

할성호 시간이 추억하는 내 기억 속의 전법

월간 『불교와 문화』 1년 구독료 30,000원(1권 3,000원) 구독문의: 02-706-1570 (『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www.buddhisticulture.co.kr